

2004년 1학기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한 〈강사를 위한 강의법 과정〉은 총 4차례에 걸쳐 연속성을 갖고 시행된 워크숍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 강사와 강의를 준비하는 박사 과정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강의전략'과 같은 강의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부터 '웹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실습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4월 14일에 실시된 강명구 교수(사회대학 언론정보학과)의 '강의개선사례-협동학습'과 유병민 교수(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의 '웹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운영' 등을 들은 유순복 씨(인문대학 미학과 석사)가 참석 소감을 써주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참석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의법 과정〉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이를 실기로 결정한다.

살아있는 강의

유 순 복*

인간으로 태어나 평생의 업으로 삼아야 하는 가장 바람직한 직업은 무엇일까. 맹자(孟子 BC 372~289)는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중 하나로 “천하의 영재들을 얻어서 그들을 교육하는 것(得天下之英才, 而教育之三樂也)”이라 하여 가르치는 즐거움을 말하였고, 공자(孔子 BC 552~479)는 “배우고 항상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않는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 하여 학습의 기쁨을 말하였다. 굳이 성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르치고 배우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분명 축복 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인간은 가르치고 배울 때 진정 즐거운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지극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필자는 동양미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동양학이야말로 정말 재미있고 매력 있는 과목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하였다. 이에 먼저 교육에 관한 몇 가지 근본 요소들로부터 그 문제를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교육의 한자적 어원을 살펴보면, ‘교(教)’는 ‘매로써 아이를 길들인다’, ‘육(育)’은 ‘아이를 살찌운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교육은 아이의 정신과 육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석사

체가 잘 여물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구의 어원을 보면, ‘Education(英)’이나 ‘Erziehung(獨)’ 모두 라틴어 ‘Educatio’에서 유래되었는데, ‘밖으로 빼내어 끌어올린다(drawing out)’는 뜻이다. 종합하면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의 정신과 육체를 충실히 채우고, 그 속에 있는 선천적 자질과 흥미를 발견하여 개발시킴으로써 창조적인 생활양식을 수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국민교육헌장에는 밖으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여(弘益人間) 국가의 발전에 봉사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시키며, 안으로는 자신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의 현장은 어떠한가. 지난친



‘웹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운영’에 대해 강연하고 실습을 지도한 유병민 교수(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가 한 참가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 강좌는 참가자들이 강의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익혀보는 시간이 되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만을 촉구함으로써 인성 교육은 무시되고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한 다름 아닌 것이 되었으며 그러한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대학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심심치 않게 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시원한 결과를 얻는 것 같지는 않다.

21세기는 문화 강대국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Culture)의 시대라 한다. 교육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제 문자중심의 지식시대는 창조적인 문화의 시대로 바뀌어, 틀에 박힌 기존의 교사중심 교육 혹은 일관성 없는 학생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20세기의 패러다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지 않은가. 이에 시대에 걸 맞는 창조적인 지식인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교수들이 먼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필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강의법 과정〉 프로그램에 직접 참석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배워보기로 하였다. 필자가 참석한 강의

는 ‘협동학습’과 ‘웹보조수업’ 그리고 ‘강의 촬영과 분석’이었다.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이란 기존의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학습 방법이다. 협동학습의 종류에는 “팀성취 보상기법(STAD),” “전문가 집단 학습을 통한 협동학습(Jigsaw)” 등이 있는데 다소 그 과정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학습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몇 명씩 조를 짜서 주제를 정하고, 일정한 시간 내에 결과물을 제출하고 발표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때 교사는 학습 전에 먼저 구체적인 학습의 목표와 주제를 제시하고,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알려준 다음 문제에 접근하기 쉽도록 가설을 세우도록 격려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며, 틈틈이 토론이 진행되는 중에도 논의의 초점이 벗어나지 않도록 요점을 정리해 주며, 학생들 간의 논쟁의 관계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돋는 등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본 강의에서는 위의 방법을 간단하게 응용하여 실험하였는데, 기존의 수업에서 볼 수 없었던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을 갖게 하였으며 학습이라기보다는 놀이의 연장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기존의 학습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즉 협동학습은 교수 위주의 일방적인 가르침을 벗어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학습의 동기와 의욕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아울러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의사소통의 기술 및 사회성을 가르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너지의 효과로 교과에 대한 지식과 학업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집단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줘 올바른 인성을 지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기존의 닫힌 사고에서 열려진 사고로의 전향을 추구해 학생 스스로, 구체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사고를 지니게 하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웹보조수업(Webclass)은 웹이 제공하는 풍부한 정보와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을 활용하는 수업이다. 센터에서는 강의자료의 게시, 학습자의 능동적 수업참여 촉진,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온라인 상의 강의, 수업관리의 편이성 증진 등 효율적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이 중 이번에 실시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동영상 만들기’ 강의는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막연한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직접 만들어 보니 자신감이 생기고, 필자의 과목에 어떻게 응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지루할 수 있는 강의실의 면대면 강의에 병행하거나 혹은 보조적으로 운영한다면 학습 분위기의 쇄신은 물론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외에 교수의 강의를 직접 촬영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강의자가 자신의 언어적 표현(발음, 억양, 화법), 비언어적 표현(자세, 표정, 몸짓 등의 행동), 시각 매체 사용, 강의의 구성, 속

도, 시간 안배 등 자신이 직접 자신의 수업을 체크하고 개선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돋는다고 생각한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니 가르치는 기술 또한 끊임없는 연습과 반성, 교정이 수반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리라. 다만 자신이 강의하는 모습을 참고 보아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강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면 한 번 시도해 봄직도 하겠다.

필자는 이상의 <강의법 과정>의 세 가지 강의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움직이는 ‘살아있는 강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다. 언급했듯이 지금껏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심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본다. 교수와 학생들이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감수성과 개성 등을 발견하여,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학습에 임한다면 그들은 다각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문 탐구의 뜻 깊은 보람을 느낄 것이고 그 안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수학습방법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아무쪼록 이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많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강명구 교수(사회대학 언론정보학과)가 ‘강의개선사례–협동학습을 적용한 강의’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협동학습은 교수 주도의 설명식 수업에 대안으로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강의 전략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